

높아지는 방법

How to Go Higher

누가복음 14:7-1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0월 13일 설교

⁷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⁸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⁹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¹⁰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¹¹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발을 씻어 주라

세족식 아시지요? 말 그대로 발을 씻어주는 의식입니다. 그냥 ‘발 씻기’ 하면 될 걸 왜 어렵게 한자로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이 세족식을 하는 교회가 제법 있습니다. 수양회, 부흥회, 취임식, 이런 큰 행사 때 많이 하던데 주로 목사, 장로가 교인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감동을 받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장로님이 직접 무릎을 꿇고 내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는데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여러분도 제가 발을 씻어드리면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발 씻는 것도 성찬식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성찬식을 왜 합니까? 예수께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셨으니까 하지요? 그런데 너희도 발을 씻어 주어라 하신 이걸 성찬식 하듯 하진 않습니다.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교파도 있긴 합니다만 거기 가도 성찬 정도는 아닙니다.

발을 씻는 것은 유대인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건조한데 신발은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니까 발에는 언제나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모시면 발 씻을 물부터 줍니다. 좀 귀한 손님이면 노예를 시켜 아예 발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된다 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스승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어 드려야 맞는데 예수께서는 거꾸로 하신 겁니다. 스승이실 뿐 아니라 제자들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이 아주 성경적인 행사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발을 씻는 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예처럼 그대를 섬깁니다 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다른 뜻도 담겨 있습니다. 왜 꼭 목사하고 장로가 교인들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 목사하고 장로가 교인들보다 더 높다는 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높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 여러분을 섬깁니다 하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섬긴다는 고백 이전에 우리가 더 높소 하는 뜻이 담겨 있으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

오늘 이 말씀도 비유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세족식 같은 걸 열심히 하게 됩니다. 비유가 뭐니까? 비유는 간단히 말하면 땅의 것으로 하늘의 법칙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씨 뿌려 알곡을 거두는 일을 이용해 ‘농사 잘 지어 부자 되라’ 하하지 않고 ‘삶으로 열매를 맺으라’ 하고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땅의 일, 우리가 잘 아는 그 일을 이용해 보다 높은 원리를 가르치시는 게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유를 그냥 땅의 일, 땅의 원칙으로 붙들어 맵니다. 천국의 원리인 줄 모르고 세족식을 합니다. 오늘 이 비유도 잔치에서 자리 갖고 싸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도 비유니까 배경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에 큰 잔치의 비유를 살폈지요? 오늘 이 비유도 같은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대표자 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일행만 열 셋입니다. 다른 손님도 있었으니까 상당히 큰 잔치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자리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거지요. 세상에는 이른 바 서열이라는 게 있어 대개는 그 순서대로 갑니다.

잔치를 주최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도 많이 참석했겠지요. 종교지도자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르신들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윗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결혼식에 초대받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예수님에게 윗자리를 안 드려 마음이 상하셨나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 다만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천국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

왜 윗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까? “너보다 귀한 손님이 오면 혼주가 너한테 와서 그 손님한테 자리를 내주라 할 것이고 그러면 너는 끝자리로 가기 시작할 터이니 부끄럽지 않겠느냐?” 나는 내가 가장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초대한 사람 가운데 나보다 귀한 손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려납니다. 주인이 날 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나보다 더 귀한 그 손님 체면도 무시할 수 없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사람을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관행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결혼 잔치라면 순서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신랑신부가 앉을 것이고 그 곁은 가족들이 앉겠지요. 주례로 귀한 분을 모셨다면 그 분도 가까이 모셔야 되겠지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초대받거든 끝자리에 가 앉아라. 그러면 혼주가 와서 ‘친구여, 더 높은 자리로 옮기게’ 할 것이요 그러면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지 않겠느냐?” 초대를 받아 자리를 잡는데 가장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앉아 있으면 주인이 나를 부를 겁니다. 나는 그래도 초청장은 받았습시다. 혼인 잔치에는 동네 거지도 다 오는데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이고, 자네 왜 여기 있나?’ 하고는 황급히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저 분은 지체가 높으신 분인 모양이구나’ 아니면 ‘혼주하고 잘 아는 사인가 보다’ 할 것이니 옮기는 나도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주님의 결론이 뭡니까? “스스로 높이는 이는 다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결론에 소금을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싱겁지 않습니까? 참 평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망신을 당합니다. 자기를 높이며 하다가 오히려 낮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면 높아질 것입니다. 뭇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귀가 따갑도록 듣던 말씀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시니 어머니가 갑자기 보고 싶어집니다.

땅에서 얻는 교훈

겸손하라는 말씀 맞습니다. 나를 낮추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알면 이 말씀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의 일을 갖고 하늘의 교훈을 주시는데 그 정도만 알면 땅의 일로 땅의 교훈을 얻고 마는 겁니다. 나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그 정도는 주님 말씀 아니라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다 잘 아시지요? 이 교훈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은 사람이 공부를 좀 했다고 빠지면 안 되고 배울수록 더욱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머리에 든 게 많아도 그렇고 돈이 많거나 명예나 권력을 가져도 그걸 과시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도 겸손 맞습니다. 동양적인 겸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방법, 좋게 말하면 예절이고 탁 터놓고 말하자면 처세술입니다. 어머니한테서 배우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가 워낙 똑똑해 합격했습니다’ 한다든지 ‘열심히 공부해 얻은 인간승리입니다’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런 건방진 놈, 시험 하나 붙었다고 눈에 띄는 게 없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면 사람들이 당장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원 덕분입니다.’ ‘부족한데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추켜 줍니다. 저 훌륭한 일을 이룬 저 사람이 인품도 저렇게 훌륭하구나 하면서 두 배 세 배로 높여줍니다.

세상 사는 원리

세상을 사는 원리입니다. 동양적인 겸손이지요. 서양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해야 되는 곳이라 하지만 서양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해 남이 안 챙겨주니까 자기주장을 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과시하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날아갑니다.

겸손은 낮추는 건데 목표는 다릅니다. 뭡니까?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기 위해 낮춥니다. 내가 머리에 든 게 좀 많아서 고개를 숙였더니 누가 위에서 내려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고개를 들고 싸워야지요. 높여 달라고 낮춘 거지 그렇게 밟으라고 낮춘 건 아니었으니까요. 훌륭한 일을 이루어 놓고 ‘부족합니다’ 하고 예의를 갖추는데 누가 ‘그 말 맞

다. 소 뒷발에 쥐잡기로 성공한 거지' 그래 보십시오. 난리가 나겠지요.

어떤 사람이 높아집니까? 일단 높아지려 애쓰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돈도 날마다 돈 돈 노래 부르는 사람이 벌고 지위도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이 연습니다. 가만있는데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대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자면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지요. 그렇지만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됩니다. 보이는 데서는 반대로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수중발레라는 게 있지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인데 물 위로는 우아한 동작을 하지만 물속에서는 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야 몸을 물 위로 그렇게 높이 유지하지요.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만 물속에서만 하고 물 위에서는 얼굴에는 웃음을 가득 담고 팔은 우아하게 울동을 해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하는 기부가 좋은 보지요. 연예인들이 기부를 왜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까? 그런 경우도 없진 않겠지요. 그렇지만 대개는 인기를 위해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나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했다 하고 납니다. 왼손은 몰랐지만 소속사에서 알고 언론에다 보도 자료를 돌립니다. 왜 돌립니까?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겠다는 겁니다. 인기가 올라가면 돈은 몇 배로 따라오지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약간의 돈을 포기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이걸 뭐라 합니까? 예, 투자라 부르지요. 물고기를 잡을 때도 미끼 값은 써야 됩니다.

말씀을 오해함

오늘 이 말씀을 그런 뜻으로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만약 주님 말씀이 그런 뜻이라면 주님은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곧 처세술을 가르치신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 못한 가르침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명심보감> 혹시 보셨습니까? 첫 구절부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갚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 화로 갚는다' 합니다. 이거 공자 말씀인데 땅에서 난 공자도 지금 하늘을 이야기하는 판국에 하늘에서 오신 우리 주님이 땅 이야기만 하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그런 뜻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읽기는 성경을 읽어놓고 가르치는 내용은 공자왈 맹자왈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 대신 사서삼경을 참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석 가운데도 엉터리가 있으니 한 두 사람 탓할 일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읽고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겸손하라 가르칩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고 열심히 봉사하면 직장에서는 과장으로 부장으로 승진하고 교회에서는 집사로, 장로로 높여준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예화도 많지요. 낮추긴 낮추는데 목표는 언제나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도 목표는 물론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 낮아져야 한다, 다시 말해 목표와 반대되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도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땅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방법을 써 더욱 높아지는 이 세상의 원리를 갖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 그걸 가르치십니다.

주 예수의 모범

낮아지면 다시 높아진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보기가 있지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셨는데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낮아진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여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다 알고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땅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 주님은 성공사례가 아니라 실패한 경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받으며 당신을 낮추셨더니 나중에 가서는 아예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낮추셨더니 사람들이 '야, 훌륭하신 분이야' 하고 높여주시는커녕 짓밟더니 죽여 버렸습니다. 사람 인생이 어디까지입니까? 죽는 순간까지 아닙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죽고 난 다음 영의정으로 추대해 주면 뭐 합니까? 나는 죽고 없는데? 세상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게 그렇게 죽어 끝난다면 바보짓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어차피 끝이니 죽기 전에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자고 젊었을 때는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를 본받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낮은 마음을 갖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높아지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모릅니다. 주님은 그냥 낮아지고 끝났습니다. 죽기 전에 다시 높아지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동한 꿈을 꾸면서 낮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금 나를 좀 낮추면 하나님이 나중에, 적어도 죽기 전에, 이왕이면 좀 빨리, 높여주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런 게

목표라면 공자를 따라가고 명심보감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거나 주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 주셨지만 그건 죽고 난 다음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죽는 걸로 끝입니다. 주님 본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닮게 해 달라고 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직장에서 승진시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직분 맡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리막 오르막

오늘 말씀에서 천국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 욕심의 눈으로 보니까 복잡합니다. 주님의 비유는 믿음으로 보면 쉽습니다.

처음 상석에 앉았다가 밀려나는 사람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이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말석으로 가기를 시작하리라”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사람을 바로 말석으로 보내기야 하겠습니까? 몇 칸 아래로 가라 하겠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최고 상석에 앉았다면 갈 수 있는 방향은 낮아지는 쪽입니다. 말석을 향해 가는 방향이지요? 말석에 앉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석에 앉은 사람을 혼주가 와서 보고 가장 상석으로 옮겨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옮겨 준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앉았으니 위로밖에 더 가겠습니까?

내려가는 건 부끄럽습니다. 올라가는 건 자랑스럽지요. 나는 잘났다 생각했는데 남이 아니라 하니 부끄럽고, 나는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접해 주니 뿌듯하지요. 뭐가 지혜입니까? 올라가는 길, 자랑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데 그건 바로 말석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등인 사람은 꼴찌가 되고 꼴찌는 일등이 될 거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등이라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길은 내려가는 길뿐입니다. 꼴찌는 반대겠지요?

내가 정말 일등이라면 안 내려가도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는 아무도 일등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면 바리새인처럼 높다 생각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알면 알아서 말석으로 갑니다. 그러면 남은 건 높아지는 길뿐이지요.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평생 고생하다가 마지막 하루 기분 좋게 죽는다고 잘 산 인생이라 할 수 없지요. 그럴 바에는 미리 놀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거기가 영원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낮아졌다가 땅에서 다시 높아져도 기분 좋지요. 그렇지만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이 계시던 분들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회장님! 다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걸로 끝이라면 그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죽는 게 최고겠지만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가 영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결론을 볼 수는 없습니다.

혼인 잔치 자리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냥 잔치라 안 하시고 어떤 잔치라 하셨습니까? 혼인잔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른 비유에서도 자주 말씀하신 잔치입니다. 재림에 대해 가르치신 열 처녀 비유가 있지요? 그 열 처녀도 결혼식 준비를 하는 들러리였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마 25:1-13). 주님이 주님의 제자 된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도 결혼식을 막 마치고 오는 신랑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역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눅 12:36).

혼인잔치는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마 9:15). 지난 주에 살핀 큰 잔치의 비유하고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주인이 베푸는 잔치는 혼인잔치였습니다 (마 22:1-14). 혼인잔치는 우리 주님이 하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죄인을 영원한 벌에 처하시는 무시무시한 순간이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가리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부릅니다 (계 19:7, 9).

누가 이 잔치에 들어갑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아니, 나는 그런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만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지로 끌려와 저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혼주가 와서 ‘친구여, 올라가세’ 하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천국에 함께 올라가자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스스로 잘났다 생각한 바리새인은 낮아졌지만 자기를 죄인이라 생각하던 세리는 높아졌다 하셨습니다 (눅 18:9-14). 높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높여주시는 방법은 의롭다 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말석에 앉은 사람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발 씻어 주는 삶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다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낮은 곳에서 남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다 같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없고 높아졌다가 낮아진다고 크게 부끄러워할 것도 또 위로 좀 올라간다고 어깨에 힘 줄 일도 없습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562 [534]).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는 의인과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죄인이다.” 표현만 조금 바꾸었지 성경 그대로입니다. 누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죄를 가장 잘 깨닫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창녀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하신 것입니다. 나를 깨달으면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말석에 가 앉으면서도 내가 이런 귀한 잔치에 와도 되나 하고 좌불안석인 그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족식 좋지요. 직분에 상관없이 또 사회지위도 다 무시하고 아무나 붙잡고 한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발 씻어주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발 씻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거지요. 죄를 용서하는 일은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았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자시고 없이 내 죄가 무거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게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바닥을 먼저 골라야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높고 낮은 게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뜻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권수경 목사)